안치홍, 롯데와 2+2년 최대 56억원에 FA 계약

2009년 입단 KIA 프랜차이즈 스타

KIA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안치홍(30)이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다.

롯데는 6일 안치홍과 2년 최대 26억원(계약금 14억2000만원·연봉 5억8000만원·옵션 6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2년 최대 31억원 규모의 구단과 선수 상호 계약 연장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연장이 실행될 경우 계약은 최대 4년 56억원이 된다.

구단이 연장을 선택할 경우 선수는 계약 연장 또는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구단도 2년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선수에게 바이아웃 1억원을 지급하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안치홍은 2009년 2차 1라운드로 KIA 타이거즈에 입단 후, KBO 통산 10시즌 동안 1124경기에 나서 타율 0.300, 100홈런, 586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첫 해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세 차례 골든글러브와 두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롯데는 "리그에서 검증된 2루수인 안치홍을 영입해 타선 강화와 함께 내야의 치열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서 구단과 선수 모두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팬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안치홍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새로운 도전을 나선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롯데 구단의 믿음에 보답하고 열정적인 롯데 팬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언맨' 윤성빈, 시즌 3번째 스켈레톤 월드컵 금메달

독일 알렉산더 0.05초 차로 따돌려

개인통산 IBSF월드컵 10승 달성

'아이언맨' 윤성빈(26·강원도청)이 시즌 세 번째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윤성빈은 5일(한국시간)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2019-2020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최종 1분52초95를 기록, 독일의 가스너 알렉산더(1분53초00)를 0.05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3위는 독일의 악셀 융크(1분53초03)로, 윤성빈은 홈 이점을 안고 있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윤성빈은 1차 시기에서 56초36으로 1위에 올랐다. 2차 시기는 1차 때보다 다소 저조했으나 56초59로 끊어내면서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채 우승을 확정지었다.

윤성빈은 지난 12월9일 열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7위에 올랐고 12월14일 2차 대회에서는 6위를 차지하는 등 메달 획득에 실패했으나 시즌 3번째 대회이자 2020년 첫 대회에서 단숨에 정상에 올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은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IBSF 월드컵 10승을 달성, 정상급 선수로서의 질주를 이어가게 됐다.

함께 출전한 김지수(26·강원도청)는 1분53초49로 6위를 기록했고 정승기(21·가톨릭관동대)는 1분53초80으로 9위를 차지했다.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3명이 톱10 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ML 입성 무산' 김재환 "두산 우승 위해 헌신 할 것"

소속사 스포티즌 "4개 구단과 협상…최종 합의 못해"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에 실패한 김재환(32·두산 베어스)이 "두산의 통합우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재환의 매니지먼트사 스포티즌은 6일 "메이저리그 4개 구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김재환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최종 무산됐음을 알렸다.

김재환은 지난해 12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팀 두산이 선수의 뜻을 존중해 허락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포스팅 공시를 요청했다.

김재환의 포스팅은 12월6일(이하 한국시간) 공시됐다. 김재환에게는 '한미 선수계약협정'에 의해 한 달이라는 협상 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포스팅은 무산된다.

데드라인은 6일 오전 7시였다. 이 시간을 넘어선 시점에서 김재환의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메이저리그 진출 실패다. 이제 김재환은 두산과 연봉협상을 마치고 시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스포티즌 측은 "최근 2주간 김재환에게 본격 관심을 가지게 된 메이저리그 4개 구단들과 발 빠른 협상이 진행됐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기준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김재환 선수가 계획 중이었던 일정보다 1년 앞서 기회가 찾아왔고, 이에 과감히 한 발 앞선 도전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이번 포스팅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재환은 "메이저리그 도전이라는 값진 기회를 허락해 주신 두산 베어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0시즌 다시 한 번 두산 베어스의 통합우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류현진의 토론토 합류 '주요 전력보강'…AL 랭킹 10위"

보스톤 지역매체, 아메리칸리그 랭킹 1위, 게릿 콜 영입한 뉴욕 양키스 선정

휴스턴-미네소타-템파베이-오클랜드

류현진(33)을 품에 안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번 시즌 전력이 강해졌다는 현지 매체의 평가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역매체 '보스턴 헤럴드'는 지난 5일(한국시간) 포스트시즌을 노리는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11개 팀의 랭킹을 매겼다.

이 매체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LA 에인절스,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력을 보강했다고 평가했다.

미네소트 트윈스의 경우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위해 선발 로테이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시애틀 매리너스 등 4개 팀은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랭킹에서 제외했다.

류현진이 합류한 토론토는 11개 팀 중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스턴 헤럴드는 토론토가 이번 시즌 주요 전력 보강으로 류현진, 태너 로어크, 야마구치, 체이스 앤더슨, 트래비스 쇼 영입을 꼽았다.

주요 전력 손실로는 저스틴 스모크, 프레디 갈비스, 에릭 소가드를 짚었다.

보스턴 헤럴드는 토론토에 대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캐번 비지오, 보 비셋, 루르데스 구리엘 주니어 등 젊은 선수들이 앞으로 몇 년간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트시즌을 노리는 아메리칸 리그 랭킹 1위에는 게릿 콜을 영입한 뉴욕 양키스가 선정됐다. 2위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3위는 미네소타, 4위는 탬파베이 레이스다.

5위는 오클랜트 애슬레틱스, 6위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7위는 보스턴 레드삭스, 8위는 시카고, 9위는 에인절스 그리고 11위는 텍사스가 꼽혔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